

“초심 간직한 친절한 공무원 될 것”

광주시 서구 금호2동 주민센터 이예림씨

발령 2개월째... 성실함 무기로 업무 최선 “주민들에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공무원시험 준비할 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잊지 않는 초심을 간직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금호2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2개월째 근무 중이라는 이예림씨(25)는 아직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다.

그는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4학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평소 습득력이 빠르고 주변인들에게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

었던 그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그렸다.

지난 2016년 2월 졸업한 이씨는 평소 새벽시간을 좋아했던 것이 생각나 새벽에 공부하고 밤에 일찍 자는 것으로 공부습관을 들였고, 다른 준비생들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은 적어가고, 알았던 부분도 다시 복습하며 시험날짜만 기다렸다.

1년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는 지난 5월 공무원 시험을 치렀고, 7월 말에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합격했다는 기쁨에 잠을



선했던 이씨는 금호2동 주민센터로 발령받기 전까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도 설쳤다.

그렇게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까 고민하던 그는 지난 10월 10일 금호2동 주민센터에 첫 출근을 했고, 특유의 성실함을 무기로 열심히 배우나갔다.

이씨는 “아직도 배울게 산더미 같다”며 “부족함 없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툴고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신입 공무원이지만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의 시작은 주민센터에서 시작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친절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좋은 선배님들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잘 습득해 나중에는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기간에 불평불만이 많은 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맞춰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부모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중찬 기자



한중문화교류원-중국 주요 대학 교류협력 체결
사단법인 일대일로 한중문화교류원(상임대표 문상필)은 지난 7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대강의실에서 칭화대와 후난대, 허얼빈 사범대 및 재한중국인방문교수협의회 등 중국의 주요 대학 및 단체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운남동 지사협 제16회 주민복지한마당
광산구 운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병우)는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복지나눔에 참여한 주민과 한 해를 돌아보고, 이웃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제16회 주민복지한마당’을 열었다.



별교농협 고향생각주부들의 모임 보성 소외 이웃에 김장 김치 전달

보성군 별교농협 고향생각주부들의 모임(회장 송공심)은 최근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등 포근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 육묘장에서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장애인 및 마을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회원들은 포근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날 5일전부터 갖은 양념을 준비하고 질일배추를 세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등 포근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별교농협 김기순 조합장은 “별교농협은 고향생각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수시로 돌보는 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포근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날 5일전부터 갖은 양념을 준비하고 질일배추를 세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등 포근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국립나주박물관 트리 점등식

국립나주박물관은 크리스마스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소원나무)에 개인의 바람을 담은 소원지를 달아 그 성취를 기원하고, 아울러 현재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 ‘풍요의 땅 전라-천년의 시간을 걷다’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2일 오후 3시 겨울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왼쪽부터 문학부문 김옥애씨(아동문화), 예술부문 김오현(국악)·최상준씨(미술).

김옥애·김오현·최상준씨 ‘전남도 문화상’

작품활동·토요상설공연·지역문화예술발전 기여 공로

지역 문화 분야 최고상인 제62회 전남도 문화상 문학 부문에 아동문학가 김옥애씨(71)가 선정됐다. 예술부문에는 국악인 김오현씨(63), 전문건설인 최상준씨(80)가 수상했다.

강진에서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애씨는 40여년간 동화작가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악인 김오현씨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으로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된 진도에 걸맞은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을 이끌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전문건설경영인인 최상준씨는 사재를 들여 화순군립석봉미술관을 건립하고 화순군에 기부해 미술품 253점도 기증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문화상 수상자 선정은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으로부터 문화예술적 역량이 탁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뤄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53명 중 9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7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1956년부터 시작된 전남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가진 상이다”며 “올해 수상자들도 문화계의 큰 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문화상은 그동안 허백련 화백, 오지호 화백, 오승우 화백, 김현승 시인, 한승원 소설가 등 361명이 수상했다.

/정근산 기자



법무부 법사랑 외국인위원회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일 법무부 법사랑 외국인위원회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전달식은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김병군 법무부 법사랑 외국인위원회 위원장,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주정주 센터장,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성단 총괄팀장,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신애 센터장,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숙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5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각 100만원씩 전달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김병군 법무부 법사랑 외국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전달되는 성금이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보듬어주고 한국생활을 잘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ACC 환경보호 문화 확산 앞장

시민들과 함께하는 ‘ACC 환경캠페인’ 전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ACC는 지난달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ACC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CC 환경캠페인은 세 번에 걸친 시리즈로 ▲환경지킴이 서약 ▲환경지킴이 실천운동 ▲우리차(茶)와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진행된다.

환경지킴이 서약은 ACC 하늘마당과 어린이문화원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서약과 함께 환경지킴이가 되면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미니화분 키트를 증정 받았다.



광주대 교직원·학생 ‘사랑의 김치 배달’

김치 250박스 남구자원봉사센터 통해 전달

광주대학교는 지난 7일 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실습실에서 학교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봉사단, 학생회봉사단,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 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나눔&희망-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는 9년 전부터 광주대 사회봉사단이 주최하고 있으며 이날 교직원과 학생들이 담긴 김치

250여 박스(1,250kg)는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복지 시설과 소외 계층에게 전달됐다.

광주대 사회봉사단 윤홍상 단장은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매년 연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김장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소외 계층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이날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김치 250박스를 포장하고 있다.